

濟州道內 製造業의 現況과 勤勞者實態

金 範 國

I 序 言	2. 年度別 構成
II 製造業의 現況	3. 學力別 構成
1. 業種別現況	IV 賃金實態
2. 業種別比重	1. 業種別
3. 規模別現況	2. 規模別 從業員種別
4. 生産額에 對한 諸比率	3. 賃金支拂形態
5. 地域別分布	V 勞動時間
III 就業構成	VI 結 言
1. 從業員種類別, 規模別構成	

I 序 言

「人力은 組織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經營者가 支配하지 않으면 안될 資源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經營者는 그의 組織의 他人들의 協力에 의하여 이것을 수행한다. 衷心으로 부터의 協力を 확보한다는 문제야 말로 管理의 中心的인 또 不斷의 문제이다」라고 P. Pigors와 C. A. Myers는 「Personnel Administration」에서 말하고 있다.

現代 經營에서 經營目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構成員인 從業員의 協力を 衷心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에 속한다고 하겠다.

資本家와 勤勞者는 그들의 본래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서로 協力關係를 맺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으면서도 資本家는 그들의 利潤을 최대로하기 위해서 低賃金을 고집할 것이며 勤勞者는 生活維持, 生活向上을 위해서 適正生計費를 요구하는 相互利害가 相反되는 立場에 놓여있는 것이다.

勞使는 對等한 立場에서 勞動契約을 체결토록 되어 있고 賃金, 勤勞時間, 休息, 保健厚生등에서 勤勞者를 보호하는 規定이 있으나 실제문제 있어서 勤勞者는 劣勢에 있기 때문에 賃金面 등에서 最低生計費에도 미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勤勞基準法上에 規定된 休暇나 其他 문제에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음으로 사실상 Team-work 형성의 문제는 요원한 실정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키 위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각 지역별로 근로자에 대한 實態調査가 실시되어 합리적인 勞動力運營을 위한 문제점이 제시되고 勞動力管理에 대한 개선책이 촉구되어 오고 있으나 본도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도외시되어 근로자 실태가 완전히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本實態調査에서는 본도 제조업(製造業) 勤勞者의 實態를 파악하여 이를 전국의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勞動力管理에 대한 指針을 제시하고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勞使紛糾를 사전에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함으로써 노사협조의 기풍을 조성코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무전반에 관한 실태가 파악, 분석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필요한 資料를 발견치 못하여 다음 몇가지 문제에 대한 實態分析으로 이에 대신한다.

첫째 製造業의 現況

둘째 從業員 就業構成

셋째 賃金實態

넷째 勞動時間面에서 본 勤勞者의 實態이다.

製造業의 現況은 從業員의 實態를 파악키 위해서 先決問題로 다루어져야 할 것임으로 業種別, 規模別로 1955年을 基準으로 그 成長推移를 보았다.

특히 勤勞者의 生計와 士氣問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賃金問題에 중점을 두어 전국 的 賃金水準과 비교 검토키로 한다. 물론 全國과의 賃金水準등의 比較分析의 結果가 그대로 本道의 賃金政策의 수립에 반영되지는 못할 것이지만 이것을 참고자료로 하여 앞으로의 임금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본도의 勤勞者實態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마련키 위해서는 全產業에 종사하는 勤勞者가 그 對象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資料의 미비와 比較分析할 標準設定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全產業勤勞者 現在의 실태만으로는 큰의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실태에서는 본도 산업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製造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개괄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勞動廳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1965년도 본도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39개중에서 제조업이 81개, 58%로 全產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종업원 3,603명중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약 60%인 2,016명으로 전국제조업 종업원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약 50%에 비하면 약 10%가 높은 것이다.

따라서 본 실태에서는 제조업근로자에 한하고 근로자의 增減關係를 분석키 위하여 1966년 「광공업센서스」와 勞動廳의 事業體勞動實態를 참고 자료로 하고 195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1966년과 1969년 현재의 실태를 常用從業員 5인 이상의 제조업에 대하여 면접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를 집계분석하였다.

여기서도 제조업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5~9명 규모에서 20개 9~19명에서 6개, 20~29에서 5개, 30명이상에서 5개업체, 총 36개업체를 규모별로 약 10%의 有意標本抽出 하였으며 업종분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하였다.

II 製造業의 現況

본도의 제조업은 자본의 영세성, 시장의 협소등의 요인에 의하여 영세규모의 제조업만이 증가 했을 뿐이다. 업종별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 식료품 제조업, 靴類, 衣類 裝身品제조업과 石炭제품 제조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식료품 제조업의 증가는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전분제조업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석탄제품 제조업의 증가는 燃料를 연탄에 의존하는 결과에서 온 자연적인 증가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규모별로 보면 5~9명 규모의 업체가 전체제조업의 43.2%를 차지하고 30명 이상의 규모는 겨우 1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업종별로 시설의 확장내지 설비의 현대화와 판매시장의 개척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육성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1. 업종별 현황

전체제조업 224개중에서 식료품제조업이 86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靴類 21개, 석탄제품

從 業 員 數 別 規 模
< 表 1 >

區 分	5~9	10~19	20~29	30~49	50~74	75~99	100~149	150~199	計
食 料 品	10	16	25	27	7	1	—	—	86
飲 料 品	6	7	—	1	1	—	—	—	15
纖 維	4	3	—	1	—	—	—	—	8
靴類衣類裝身品	21	—	—	—	—	—	—	—	21
製材 및 本材品	6	—	—	—	—	—	—	—	6
家具 및 裝器品	9	2	—	—	—	—	—	—	11
印 刷 及 出 版	10	2	—	—	—	1	—	—	13
石油 및 石炭製品	3	17	—	—	—	—	—	—	20
유 리 土 石	12	2	—	—	—	—	—	—	14
一 次 金 屬	—	1	—	—	—	—	—	—	1
金 屬 製 品	2	3	—	—	—	—	—	—	5
機 械	1	1	2	1	—	—	—	—	5
輸送 機械器具	7	4	—	1	—	—	—	—	12
其 他	6	1	—	—	—	—	—	—	7
計	97	59	27	30	8	2	—	1	224
%	43.3	26.3	12.5	13.3	3.5	0.8	—	0.4	100

資料 : 산업은행 「광공업센서스」 1966에서 作成

제조업 20개, 음료음료제조업 15개, 인쇄출판제조업 13개의 순이며 1차 金屬製品製造業 1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1)

1955년을 기준으로 볼 때 1966년에는 제조업이 224개업체로 1955년에 비하면 191%가 증가 하였으며 급격한 증가를 보인 때는 1958년의 131%이나 3년후인 1960년에 117개업체로 감소하였다가 1963년에 39%증가한 167개이며 1966년에는 전년에 비해 34%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1955년에는 없었던 靴類, 衣服類製造業이 58년에 10개, 60년에도 계속 10개이었으나 63년에는 3개로 감소되었다가 66년에 21개로 급격히 증가하여 기준년도에 비해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다. 21개업체중에서 18개가 남자용外衣제조업임을 볼 때 이전에는 업주가 직접 고용원을 두지 않고 경영하던 것을 수요의 증가에 의하여 신설 또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의 규모 확장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家具 및 裝置品제조업 역시 1955년에는 한개업체도 없었으나 1966년에 11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석탄제품제조업은 1960년에 한개업체이던 것이 1963년에 15개로 급격히 팽창하여 1966년 현재 20개업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연료의 연탄의존도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겠으나 앞으로 업자간에 경쟁지양을 위한 공동경영이나 또는 도직영 대단위 연탄공장의 설치에 위해서 감소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食料品製造業은 86개중에서 75%에 해당하는 65개가 전분제조업이며 다음이 통조림제조업(해산물) 7개업체의 순이다. 본도 澱粉製造業은 全國 澱粉製造業 86개업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본도에 전분제조업이 편중되고 있는 이유는 전분제조업의 主原料인 고구마의 생산에 기인하고 있다. 즉 고구마의 생산실적을 보면 1963년까지 85천여톤에 머물러 있던 것이 1964년부터는 급격한 생산증가를 가져와 1964년에 163천톤, 1965년에 206천톤, 1966년에 276천으로 매년 생산이 증가하여서 전분제조업 역시 고구마생산량 증가추세와 더불어 증가하였다. 1966년현재 전국 고구마소비량 2억3천1백만톤의 양 4분의 1에 해당되는 6천86만9천톤이 본도의 소비량이다.

食料品製造業 : 15개업체중 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酒精製造業을 제외하면 燒酒製造業 6개업체중 1개업체만 30~49명 규모이고 나머지 5개업체는 소규모이며 清涼飲料製造業 2개, 藥酒 및 濁酒製造業 6개는 모두 10인미만의 소규모이다.

1955년에 8개업체가 1958년에 17개업체로 112% 증가하였다가 1960년에는 12개업체로 감소하여 1966년에 15개업체로서 이중 燒酒製造業과 濁酒製造業은 共同販賣에 의하여 앞으로의 신설업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清涼飲料製造業 역시 他道製品의 반입으로 인하여 현재의 수준유지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시설의 빈약, 규모의 영세성, 소비자의 需要選擇(他道製品에 대한)등으로 販路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纖維製造業 : 1955년에 22개업체이던 것이 1966년 현재 7개업체로 감소하여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하위에 놓여있다. 섬유공업은 우리나라 輕工業의 대표적 산업으로 生産額, 附加價値, 雇傭등의 면에서 主宗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섬유공업이 산업상에서 접하는 비중을 보면 1966년에 從業員은 전체공업의 30.3%, 生産額은 21.0%, 出荷額 21.0%, 附加價値는 全製造業의 18.9%라는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도의 섬유제조업은 主要生産品이 면포, 건사, 타올등에 한정되어 있어 섬유에 대한 嗜好가 점차 실용적인 化學纖維로 移行되고 있는데 반하여 아직까지 영세규모에서 모기장, 小倉地 등의 생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급격한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리 및 土石製造業 : 기준년도에 1개업체가 1958년에는 39개업체로 급격히 팽창하였다가 1960년에 12개업체로 감소하여 1966년에는 14개업체이다. 업종별 구성은 벽돌제조업이 1개로 가장 규모가 크며 (10~19인) 기와제조업 2개와 콘크리트 제품제조업 10개는 모두 10인 미만의 소규모로서 업종의 성격으로 보아 비교적 간단한 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분야에 힘입어 앞으로 계속 수요증가가 예상됨으로 대단위나, 또는 새로운 시설을 갖춘 업체로 규모의 확장이나 신설이 예상된다.

業 種 別 膨 脹 表

< 表 2 >

區 分	1955 (A)	1958	對 前 年度比	1960	對 前 年度比	1963	對 前 年度比	1966 (B)	對 前 年度比	B/A
製 造 業	77	166	215.5	117	-139.2	167	142.7	224	134.1	290.9
食 料 品	21	39	185.7	40	125.6	62	155	86	138.7	495.0
飲 料 品	8	17	212.5	12	-14.1	13	107.5	15	113.3	187.5
織 維	22	10	-220	6	-166.6	9	150	8	-112.5	-275
靴類衣類裝身具	—	10	1,000	10	100	3	-333.3	21	700	—
製材 및 木製品	1	4	400	3	-133.3	5	166.6	6	120	600
家具 및 裝置品	—	4	400	6	150	6	—	11	182.1	1,100
印 刷 및 出 版	7	8	113.1	4	-200	10	250	13	130	185.7
石油 및 炭製品	—	—	—	1	100	15	1,500	20	133.3	2,000
紙 類	—	—	—	1	100	—	—	—	—	—
고 무	—	—	—	1	100	—	—	—	—	—
化 學	3	3	100	1	-300	5	500	—	—	—
유 리 및 土 石	1	39	3,900	12	-325	8	-150	14	170.5	—
一 次 金 屬	1	—	-100	1	—	1	—	1	—	100
金 屬 製 品	2	10	500	4	-250	3	-133.3	5	166.6	250
機 械	2	4	200	4	—	4	—	5	125	250
輸送機械 器具	4	9	225	5	-180	14	280	12	-116.6	300
其 他	5	9	180	6	-150	9	150	7	-128.5	140

資料 : 산업은행 「광공업 센서스」 1966에서 作成

機械製造業 ; 5개업체로서 1955년도 2개업체에서 타업종의 증가율에 비하면 업종의 성격으로 시설의 확장내지 현대화가 요청되는 것이지만 전국적인 현상과는 거리가 멀어 증가율이 완만하다. 生産品目이 농기구, 원동기, 탈곡기등으로 이의 판매시장이 광범위하여야 할 것이나 판로가 도내에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도내의 시장마저도 육지부의 製品の 반입으로 본도 제품의 판로는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며 需要도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이나 보다 값싸고 성능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육지부의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본도제조업의 業種別推移를 1955년을 기준으로 보면 <表2>와 같다.

2. 業 種 別 比 重

業種別 比重을 從業員數, 生産額, 出荷額, 附加價値額別로 보면 <表3>과 같다.

여기에 사용한 生産額이란 完製品出荷額, 廢品出荷額, 受託製造收入額 및 修理收入額의 合計에서 完製品과 半製品 및 在工品の 年初年末 在庫額의 増減額을 加減한 것을 말하며 附加價値額은 生産額에서 直接生産費 즉 原材料費, 燃料費, 購入電力費, 購入用水費 및 修理維持費의 合計額을 공제한 것이다.

業体數로 가장 많은 食料品製造業은 從業員構成比가 全製造業從業員의 60%를 차지하고

< 表 3 > 業 種 別 比 重 (單位:百萬元)

	從業員數		生 産 額		出 荷 額		附加價値額	
	數	構成比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製 造 業	3,848	150	1,557	100	1,447	100	654	100
食 料 品	2,331	60.8	581	37.32	477	32.86	183	27.74
飲 料 品	318	8.25	610	39.17	611	42.23	332	50.75
織 維	102	2.64	19	1.22	17	1.20	8	1.22
靴類衣類裝身具品	127	3.28	31	2.08	30	2.10	10	1.52
製材 및 木製品	47	1.22	60	3.85	60	4.19	16	2.34
家具 및 裝璜品	91	2.35	14	0.87	14	0.90	6	0.91
印刷 및 出版	174	4.52	44	2.82	44	3.1	22	3.26
石油 및 石炭製品	233	6.17	86	5.51	85	5.78	25	3.80
유 리 土 石	74	1.84	15	0.95	13	0.89	6	0.91
金 屬 製 品	59	1.53	11	0.69	11	0.78	7	0.93
機 械	103	2.67	26	1.67	26	1.80	10	1.43
輸送機械 器具	132	3.45	45	2.89	44	3.09	23	3.28
其 他	57	1.48	15	0.96	15	1.08	6	0.91

資料 : 산업은행 「광공업 센서스」에서作成

있으며 生産額 37%, 出荷額 32%, 附加價値額 27%로서 從業員構成比에 비교할 때 附加價値額은 낮은 편이다. 附加價値額의 比重이 높은 업종은 飲料品 製造業 51%로 從業員構成比는 8%에 불과하나 生産額 79%, 出荷額 42%로서 전체조업중에서 가장 比重이 높은 것이다. 石炭製品製造業의 從業員構成比는 6%, 生産額 5%, 出荷額 5%, 附加價値額 4%로서 비율로 보아서는 낮으나 본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順位는 食料品製造業, 飲料品製造業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格差는 심하다.

전국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제조업의 본도 現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生産額이 소수에 한정되어 있고 消費者의 기호가 화학섬유에 이행됨에 따라 매년 감소의 현상을 보여 본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개 업종중 從業員數에서 8위, 生産額, 出荷額 9위, 附加價値額 8위로서 하위에 속하고 있다.

본도에서 從業員構成比가 가장 높은 食料品製造業은 전국과 비교 할 때 종업원 구성비 4위, 生産額 5위, 出荷額 5위, 附加價値額 5위로서 본도의 비중과는 다소간의 격차가 있는 바 전국식품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搗精業인데 반하여 본도는 澱粉製造業으로 이 業種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약 6개월간 稼動하면 4월~9월까지의 6개월간은 休業에 들어가는 季節産業임을 감안 할 때 雇傭安定面에서 보면 構成比 자체만을 보고 그 比重을 결정 지우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石炭製品製造業의 본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從業員數, 生産額, 出荷額, 附加價値額에서 모두 3위로서 그 順位는 높으나 1, 2위와의 격차가 심하여 食料品製造業, 飲料品製造業의 生産額이 각각 37%, 39%인 반면 다음 순위인 석탄제품제조업은 불과 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종업원 구성비에서는 음료제품조업이 8%인데 비하여 6%로서 그 차가 근소한 편이나 전체의 비중에서 볼 때 낮은 편이다. 전국의 비중은 본도와는 반대로 종업원수 2.7%로 10위, 生産額 6.7%로 7위, 附加價値額 4.9%로 9위로서 전체조업에서의 비중은 하위에 머물어 있다.

化學製品製造業의 전국비중은 종업원 구성비 9.2%(3위), 生産額 10%(4위), 出荷額 10%(4위), 附加價値額 10.1%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반면 본도에서는 1955년과 58년에 각각 3개업체이던 것이 1960년에는 1개업체로 감소하였다가 1963년에 5개업체로 증가하였으나 1966년의 실태조사에서는 제외되었지만 規模가 큰 油脂製造業체가 조사되었으면 그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全國의 化學製品製造業이 肥料製造業과, 工業用 基本化學製品製造業, 醫藥品製造業 등 규모가 큰데 비하여 본도의 경우 소규모의 성냥제조업과 비누製造業에 국한되었다가 도의 제품의 반입에 눌러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도의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飲料品製造業은 전국의 제조업 비중 중

업원수 5.5%(8위)에 대하여 본도는 8%(2위)이며 생산액, 출하액, 부가가치액에서는 전국의 비중은 2위이며 본도는 각각 1위로서 순위는 전국과 비슷하나 종업원의 순위만이 그 폭이 크다. 업종별로는 釀酒製造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전국의 경우와 같다.

機械製品製造業의 全國比重은 종업원 구성비에서 2위, 생산액, 출하액, 부가가치액에서 각각 3위로 높은 비중이 있으나 본도에서는 8위로 하위에 속한다. 생산품의 대부분이 원동기, 농업용기계, 기타 기계부분품으로 시설면이나 기술면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음은 물론 시장의 협소등에 의하여 비중이 하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본도의 입지조건으로 보아도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機械工業 育成策과 耐久消費材의 需要增大에 의하여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인 육성계획이 요망된다. 즉 기계제조업이 전체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6년에 약 10.0%에 불과하나 1976년에는 약 10.6%, 1986년에는 약 16.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계공업이 製造工業에서 점하는 비중을 先進諸國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면 美國이 1955년에 약 30.4%, 英國이 1957년에 약 36.5%, 西獨이 1954년에 약 25.9%, 日本이 1960년도에 약 24.5%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1986년에 가면 종래 제조공업의 大宗이었던 纖維工業의 비중이 점차로 감퇴되고 기계공업이 核心的 산업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¹⁾

공작기계(旋盤)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발맞추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1966년도에 약 769대에 불과하였으나 1976년도에는 년산 약 3,500여대, 1986년도 경에는 약 7,800여대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며 動力耕 機도 앞으로 농업의 近代化에 보조를 맞추어 1966년도에는 약 750대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76년도에는 년산 약 15,000여대, 1986년경에는 약 10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²⁾

본도의 기계제조업도 위와 같은 추세를 감안하여 생산품의 적절한 선택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앞으로의 본도 기계제조업의 비중도 전국과 동일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雇傭等 많은 부문에서 가장 발전이 기대되는 업종이다.

3. 規模別 現況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도제조업의 規模는 전체제조업 224개업체 가운데서 5~9명 규모의 업체가 43.2%인 97개로 거의 반수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제조업 5~9명 규모가 58.6%에 비하면 15.4%가 적은 편이나 10명 이상의 규모는 0.4%인 1개업체 뿐으로 전국 3.8%에 대하여 3.4%가 적은 것으로 되어있다.

(1) 「韓國經濟의 長期展望」 1968, P. 103

(2) 「韓國經濟의 長期展望」 1968, P. 106

100명 이상의 업체는 飲料品製造業中 酒精製造業이며 靴類 및 衣服類製造業 21개와 製材 및 木製品製造業 6개 업체는 모두 5~9명의 규모에 편중되어 있다. 업종의 성격으로 보아 전국의 규모도 전자가 약 70%인 1,864개 업체이며 후자도 약 72%인 1,054개 업체가 이 규모에 편중되어 있다.

規模別로 보면

5~9명規模 : 食料品製造業 86개 중 쇠고기 통조림제조업 1개, 해산물 통조림제조업 3개, 사탕과자제조업, 간장 및 된장, 人造氷製造業이 각각 1개 업체이고 국수제조업 3개 업체이다.

飲料品製造業中에서는 藥酒 및 濁酒製造業 6개 중 5개 업체가 이 규모에 속하며 清涼飲料製造業 2개는 모두 이 규모이며 음료품제조업 전체에서 약 50%인 반이 소규모에 속하고 있다.

섬유제조업 역시 50%, 家具 및 裝置品製造業이 약 81%, 화류 및 의복류제조업과 製材 및 木製品製造業 100%, 土石 및 유리제품제조업이 약 86%, 輸送機械器具製造業 약 58%이다.

10~19명規模 : 澱粉製造業 약 15%인 10개 업체, 燒酒製造業 6개 중 5개 업체가 이에 속한다. 煉炭製造業은 20개 업체 중 19개 업체로 다른 업종에 비하여 본도의 기업 규모로 볼 때 비교적 中規模라고 볼 수 있다. 전국 石炭製品製造業 1,042개 중 5~9명 규모가 약 49%이고 10~19명 규모가 38%에 비하면 본도의 연탄제조업 규모는 전국의 평균규모 보다 약 52%가 높다.

20~29명規模 : 食料品製造業中에서 澱粉製造業의 약 27%인 24개 업체가 이 규모로서 전국 식료품제조업 비율 약 5%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전분제조업이 비교적 대규모의 시설이 필요한 반면 전국 식료품 제조업의 대부분이 搗精業의 영세 규모에 치우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

섬유제조업 중 毛織物製造業 1개 업체가 이 규모에 속한 반면 나머지 6개 업체는 모두 5~9명 규모이다. 전국의 섬유제조업은 약 46%가 20명 이상의 규모에 비할 때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 규모에 속하는 毛織物製造業은 「이시돌協會」에서 경영하는 업체로서 제품이 모두 手工에 의해서 生産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국의 동일 규모와의 비교는 手工과 機械의 비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도의 섬유제조업은 그 시설면에서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30명 이상의 規模 : 전분제조업 65개 중 30개 業체가 이 규모이며 본도 澱粉製造業의 30명 이상의 규모는 17%에 지나지 않는다. 음료품제조업 중 소주제조업 1개, 酒精製造業 1개, 신문발행업 1개, 농업용기계제조업 1개, 각종 자동차제조업 1개 業체로서 澱粉製造業이 이 규모의 79%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地域別企業規模

< 表 4 >

地域別 従業員數	서울	京畿	江原	忠南	忠北	慶南	慶北	全南	全北	釜山	濟州	計	人 力	
													人 數	比率%
10人以下	46	18	29	12	19	26	47	13	8	3	—	191	1,843	5
	8.38	9.41	15.17	6.28	10	13.6	24.59	6.81	4.19	1.57	—	100		
	6.58	31.03	69.05	25	59.37	26	30.52	33.33	33.33	4.76	—	23.67		
11~20人	36	13	6	14	8	35	47	12	4	9	3	187	2,774	7.53
	19.25	6.95	3.21	7.49	4.28	18.72	25.13	6.42	2.14	4.81	1.60	100		
	14.81	22.41	14.29	29.17	25	35	30.52	30.97	16.67	14.29	7.50	23.17		
21人~30人	38	6	2	6	3	14	17	5	4	11	—	166	2,448	6.64
	35.34	5.66	1.89	5.66	2.83	13.21	19.04	4.72	3.77	10.38	—	100		
	15.64	10.35	4.76	12.50	9.37	14	11.04	12.82	16.67	17.46	—	13.64		
31人~50人	47	5	2	6	1	11	15	5	3	15	—	110	3,578	9.71
	42.73	4.55	182	5.45	0.91	10	13.63	4.55	2.73	13.63	—	100		
	19.35	8.62	4.76	12.50	3.13	11	9.73	12.82	12.50	23.81	—	13.63		
51人~100人	49	7	2	6	1	9	17	2	3	11	1	108	5,925	16.08
	46.36	6.48	1.85	5.56	0.93	8.33	15.74	1.85	2.78	10.19	0.93	100		
	20.17	12.07	4.76	12.50	3.13	9	11.04	5.13	12.50	17.46	25	7.63		
101人~200人	34	3	—	3	—	3	6	2	2	9	—	62	5,274	14.32
	54.83	4.84	—	4.84	—	4.84	9.68	3.23	3.23	14.51	—	100		
	13.99	5.17	—	6.25	—	3	3.90	5.13	8.33	14.29	—	7.68		
201人~500人	16	2	—	1	—	1	5	—	—	2	—	27	7,874	21.38
	59.26	7.41	—	3.70	—	3.70	18.52	—	—	7.41	—	100		
	6.58	3.45	—	2.08	—	1	3.25	—	—	3.17	—	3.35		
501人以上	11	4	1	—	—	1	—	—	—	3	—	6	7,125	19.34
	43.95	25	6.25	—	—	6.20	—	—	—	18.75	—	100	2,886	92.38
	0.88	69	2.38	—	—	—	—	—	—	4.76	—			
計	24.30	58	42	48	32	100	154	39	24	63	4	807	36,841	100
	30.11	7.19	5.20	5.95	3.97	12.37	19.08	14.83	2.97	7.81	0.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資料 : 韓國經濟發展의 理論과 現實 I. 1969, P 407

편중되어 있는 것과 같다. 기계제조업의 전국 규모는 34.3%가 30인 이상의 규모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에 편중되어 있으나 慶北, 全南의 順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본도는 0.5%로 (表4) 가장 낮은 비율이다. 시설의 빈약성과 시장협소 등을 타개하여 앞으로의 수요추세에 따른 적절한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육성한다면 앞으로 이 규모의 비중은 전분제조업과 기계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보여진다.

4. 生産額에 대한 諸比率

附加價値率에서 가장 높은 것은 金屬製品製造業 62.5%로 生産比率는 37.5%에 불과하다. 전국의 금속제품제조업 附加價値率 38.1%에 비하면 24.4%나 높으며 生産比率에 있어서도 전국 61.9%에 비하여 24.4%가 낮다. 이는 본도의 금속제품제조업이 소규모의 시설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볼트, 너트와 철문등의 제작 정도에 한정되고 있는 반면 전국 금속제품제조업은 비교적 대규모시설을 이용하는데서 오는 固定費의 增加에 의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속제품제조업은 본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지적할 수 있다.

飲料品製造業은 附加價値率 54.4%, 生産費率 45.6%로 전국의 수준과 동일하나 13개 업종 중에서 2번째로 수익성은 높은 업종이다.

附加價値率에서 가장 낮은 업종은 製材 및 木製品製造業으로 27.3%, 生産費率 72.7%로 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가 가치를 25.0%, 生産費率 75.0%의 收益성이 빈약한 업종으로 지적될 수 있다. (表5)

< 表 5 > 生産額에 대한 諸比率

區 分	附 加 價 値 率		生 産 費 率	
	全 國	本 道	全 國	本 道
食 料 品	34.0	31.5	66.0	68.5
飲 料 品	49.3	54.4	50.7	45.6
織 維	33.0	41.7	67.0	58.3
靴 類 衣 服 類	36.1	32.5	63.9	67.5
製材 및 木製品	25.0	27.3	75.0	72.7
家具 및 裝置品	42.2	41.7	57.8	58.3
印 刷 및 出 版	46.5	49.5	53.5	50.5
石 油 및 石 炭	27.4	29.6	72.6	70.4
유 리, 土 石	46.6	39.6	53.4	60.4
金 屬 製 品	38.1	62.5	61.9	37.5
機 械	44.3	38.0	55.7	62.0
輸送機械 器具	38.2	51.4	61.8	48.6
其 他	38.1	28.9	61.9	71.1
計	37.4	42.0	62.6	

5. 地域別 分布

제조업 전체 224개 업체중 59%가 濟州市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전국의 分布가 서울에

플라스틱 15개업체가 濟州市에 통조림, 긴장및 된장제조업등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北郡에 11개 중 7개업체가 전분제조업이며 南郡에는 60개업체 중 통조림제조업 5개와 물엿제조업 1개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澱粉製造業이다.

飲料品製造業은 濟州市에 5개업체, 北郡과 南郡에도 각각 5개업체로 고루 分散되어 있는데 이의 업종이 대부분 燒酒와 濁酒製造業임을 볼때 이의 地域別 分散은 당연한 것이다. 靴類및 衣服類製造業은 本道전체 21개업체 중 20개 업체가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고 1개 업체는 南郡에 있다. 연탄제조업 20개 업체 중 17개가 제주시, 北郡에 1개, 南郡에 2개 업체로 미루어 아직도 농촌에서는 연료로서 연탄의 보급이 일부에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농촌에까지 연탄보급이 이루어지면 북군과 남군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北郡의 전분제조업 7개는 모두 10명 이상의 규모이고 50~74명 규모의 업체는 배합사료 공장이며 통조림제조업 1개 업체와 전분제조업 2개업체는 北郡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北郡의 제조업수는 전도 제조업의 7%에 불과하며 南郡의 34%에 비하여도 상당히 큰 격차가 있다. 南郡보다 27%나 적은 것은 남군의 전분제조업이 자체제조업 비율에서 74%라는 것을 감안할때 고구마의 수확량으로 미루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南郡에서의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은 食料品製造業으로 59개 업체 중 54개 업체이다. 규모로도 10~19명 規模가 9개, 20~29명 규모 18개, 30~49명 규모가 24개, 50~74

業種別地域別分布

< 表 6 >

區 分 業 種 別	濟 州 市	北 濟 州 郡	南 濟 州 郡	計
食 料 品	16	11	59	86
飲 料 品	5	5	5	15
織 維	4	4	—	8
靴類衣服製身品	20	—	1	21
製材및 木製品	5	—	1	6
家具및 裝置品	10	—	1	11
印 刷 및 出 版	11	—	2	13
石 油 및 石 炭 製 品	17	1	2	20
유 리 土 石	11	—	3	14
一 次 金 屬	1	—	—	1
金 屬 製 品	5	—	—	5
機 械	4	—	1	5
輸送機械 器具	8	1	3	12
其 他	7	—	—	7
計	124	22	78	222

명 규모 2개, 75~99명 규모가 1개업체로 타지역에 비하여 규모가 큰 것이 특색이며 통조림 제조업과 물엿제조업도 모두 10명 이상의 규모이다. 1969년 본도 고구마 수확량 270,673톤 중 약 61%에 해당하는 165,823톤이 南郡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볼 때 남군에 전분제조업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외의 현지생산조달이 가능한 연탄, 기계수리 등의 제조업이 濟州市와의 거리관계로 북군에 비해서 업종별로 고루 설치되어 있다. 業種別, 地域別 분포를 보면<表6>과 같다.

Ⅲ 從業員 就業構成

1969년말 현재 본도 제조업의 종업원수는 4,286명으로 이중 제주시에 1,328명, 북제주군 711명, 남제주군 2,247명으로 제조업수에 비해서 북군과 남군 특히 남군에 많은 종업원이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규모가 큰 전분제조업이 남군에 편중되어 있어 이 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수의 비중에 의한 것이다.

< 表 7 >

業種別從業員推移

	1955 (A)	1958	1960	1963	1966 (B)	構成比	B/A
製 造 業	2,385	2,286	2,046	3,190	3,848	100%	161.3
食 料 品	741	860	1,133	1,726	2,331	60.6	314.6
飲 料 品	231	225	109	382	318	8.3	537.7
織 維	525	254	140	156	102	2.6	-314.8
靴類, 衣服類	—	61	59	20	127	3.3	-12.700
製材, 木製品	11	32	26	61	47	1.3	427.3
家具, 裝置品	—	31	47	52	91	2.3	9,100
印刷, 出版	144	120	98	139	174	4.5	120.8
化學製品	122	48	—	79	—	—	-12,200
石炭, 石油	—	—	—	160	233	6.0	23,300
土石, 유리	13	253	71	74	74	1.9	569.2
一次金屬	20	—	—	16	—	—	-2,000
金屬製品	52	181	158	39	59	1.5	113.5
機 械	26	—	29	50	103	2.6	396.2
輸送機械 器具	425	115	75	169	132	3.4	-322
其 他	76	71	23	67	57	1.1	-168.9
							-133.3

본 실태에서는 規模別로 약 10%씩 有意抽出하여 1969년말 현재로 조사하였으나 이를 전국과 비교 할 1969년말 현재의 자료의 미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1966년 광공업 센

서스]와 1969년 중소기업 경영지표를 참고로 하여 비교코자 한다.

본도 製造業종업원의 推移를 1955년을 기준으로 보면 (表7)기준년도에 2,385명이던 것이 1966년말 현재 3,848명으로 약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製造業체의 增加率 191%에 비하면 종업원의 증가는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全國製造業 平均 종업원 증가율 156%의 절반에도 미달되는 것이다. 業種別로 가장 많은 增加率을 보인 것은 食料品製造業으로 1955년에 741명이 1958년에 860명, 1960년에 1,133명, 1966년에는 기준년도의 214%가 增加된 2,331명이다. 全國食料品製造業의 從業員 增加推移 129% 보다 85%가 더 증가 하였다. 이는 본도의 食料品製造業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澱粉製造業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澱粉製造業의 業種의 性格으로 보아 시설과 규모의 大規模化가 요구되는 것임으로 從業員의 급격한 增加는 당연한 것이다.

食料品製造業의 增加率도 기준년도에 대해 395%로서 1963年度에는 1960년에 대해 55%, 1966年度에는 1963도에 대해 약 39%의 계속적인 증가 현상을 나타냈다.

반면 종업원의 減少現象을 보인 業種은 纖維製造業으로서 1955년에 524명으로 당해 년도의 從業員 構成比에서 약 22%로 15개 업종중에서 3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매년 계속 감소하여 1966년말 현재 102명에 불과하다. 輸送用機械製造業 역시 1955년에 事業体數 4개에 종업원 425명으로 제조업종업원 구성에서 2위에 속하고 있었으나 1958년에는 業体數가 9개로 증가하였으나 반면 종업원수는 기준년도의 27%인 115명으로 감소되어 1969년말 현재 132명이다.

위의 2개 業種은 業種別 實態에서 말한 바와 같이 業種의 性格으로 보아 시설의 개선이나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으로 본다.

1. 從業員 種類別 規模別 就業構成

調査對象業체에 종사하는 종업원 656명 중에서 事務系從業員이 전체의 약 11%에 해당되는 78명으로 전국 사업체의 事務系從業員 12.6%와 比較하면 약 1.6%가 낮다.⁽³⁾ 生産系從業員(技術者, 技能工, 勞務者 포함)은 578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生産從業員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規模別의 實態는 5~20명 규모에서 사무계종업원이 22명으로 同系從業員의 약 28%에 해당되며 同規模 전종업원 261명에 대한 비율은 약 8%이며 技術者(技能工포함)가 172명으로 67%, 勞務者는 25%인 67명이다.

男女 構成比는 사무계 종업원 22명중 여자종업원은 단 1명 뿐이며 기술자, 기능공이 172명중 男子종업원 97명, 女子從業員 75명으로 男子종업원 對 女子從業員의 比率은 57%

(3) 노동청 「산업파노동」 : 1668, 1·2號 P. 63

대 43%이나 이 중에서 순기술계종업원 47명은 男子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技能工은 女子종업원이 男子종업원보다 25명이 많다. 勞務者도 남자종업원 대 여자종업원이 2:1의 비로 구성되어 있는 바 調事對象 勞務者에는 雜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女子 勞務者는 모두 이 雜役에 屬한다고 볼 수 있다. 5~20명 規模에서의 종업원 男女 構成은 62.4%에 대하여 37.6%이다.

21~50명 規模에서는 사무계종업원 39명으로 동 규모 전 종업원 275명에 대한 14.1%인데 5~20명 규모의 사무계종업원 비율 8% 보다 약 6%가 높고 사무계종업원의 구성비로는 50%로 가장 높다. 技術系 종업원(技能工 포함)은 44%로서 5~20명 規模의 비율 67%보다 23%가 낮은 반면 노무자 구성비는 58.1%로 5~20명 규모 25%의 2배 이상이 많다. 이것은 20명 이하 規模의 事業체가 주로 수공에 의한 생산을 함으로 별도의 잡역이나 노무자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21명 규모 이상의 業体에서는 管理를 담당하는 사무계종업원과 현장의 잡역 노무자를 분리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男女 構成比는 技術系從業員 65명중 男子從業員 33명, 女子從業員 32명으로 비중이 동일하며 32명의 女子從業員은 간단한 熟練을 요하는 技能工이다. 21~50명 規模의 男女 比重은 71.6% 대 28.4%로서 20명 이하 규모에 비해서 男子從業員이 9.1%가 높다.

51명 이상의 規模에서는 사무계종업원 17명으로 동 규모 구성비가 14.1%이며 사무계종업원 구성비는 22%로 21~50명 規模의 사무계종업원과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규모에 비해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사무계종업원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技能, 技術系 從業員의 비중은 64.1%로서 21~50명 規模의 44%보다 약 20%가 높으며 5~20명 규모의 67%와 비슷한 비중이다. 규모가 클 수록 기계 중심의 生産으로 技術者, 技能工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업원의 비중이 높은 것이며 반면 勞務者의 비중은 21.9%로 50명 이하 規模에서의 노무자 구성비 보다 낮다. 따라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男女 構成比도 사무계종업원만 10명대 7명으로 비슷할뿐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생산종업원은 모두 男子이며 勞務者 역시 女子 1명뿐

規模別 職能別 從業員數

< 表 8 >

經營規模	事務員		技術者		技能工		勞務者		計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5-20人	21	1	47	—	50	75	45	22	163	98
21-50人	33	6	33	32	56	—	75	40	197	78
51-100人	—	—	—	—	—	—	—	—	—	—
101人以上	10	7	5	—	72	—	25	1	112	8
計	64名	14名	85名	32名	178名	75名	145名	63名	472名	184名

이다.〈表8〉

본도 澱粉製造業 男女 構成은 男子 종업원 472명으로 71.9%, 女子從業員 28.1%이다. 이를 각 지구별 女子從業員 構成比와 비교하여 보면 1968년 6월말 현재 서울지구가 46.5%, 仁川 29.6%, 大邱 63.1%, 光州 56.1%⁽⁴⁾로 본도의 女子構成比는 仁川地區와 비슷하고 기타 지구에 비해서는 낮다. 이는 資本의 深化로 단순노동자인 여자종업원보다 高度의 技術能力을 가진 남자종업원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陸地部에 비해서 본도 製造業이 아직까지 시설의 현대화나 機械化가 되지 않았다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年 令 別 構 成

< 表 9 >

	20歲未滿		21—35歲		36—49歲		50歲以上		計	
	從業員數	構成比	從業員數	構成比	從業員數	構成比	從業員數	構成比	從業員數	構成比
事務系	—	—	48	11.8	26	19.1	3	30.0	78	11.9
技術系	12	12.7	49	11.8	51	37.2	6	60.0	118	16.5
技能系	45	47.3	168	40.5	38	27.7	1	10.1	252	39.9
勞務者	38	40.0	149	35.9	22	16.0	—	—	208	81.7
計	95	14.4	414	63.1	137	20.8	10	1.7	656	100

2. 年令別 就業構成比

〈表9〉에서 보면 20세 미만인 전 조사대상 종업원 656명중 95명으로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職能別로는 사무계종업원은 한명도 없고 技術系從業員이 12명으로 12.7%, 技能工이 47.3%인 4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무자는 38명 40.0%이다. 여기에 속하는 노무자는 대부분 女子 雜役으로 경미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21~35세까지의 종업원은 414명으로 63.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이며 전 종업원 과반수 이상이 이 계층에 속해 있는 것은 活動的인 연령이기 때문이며 職能別 構成으로 보아도 技能工이 40.5%인 168명으로 제일 비중이 크고, 다음이 노무자 149명(35.9%), 사무계와 기술계 종업원은 각각 11.8%의 같은 비중이다.

職能別로도 사무계 종업원이 同一職의 比重에서 61.5%로 가장 높으며, 技術系가 41.5%로 36~49세 계층의 다음으로 높고, 技能系가 66.6%, 노무자가 71.6%로 全 職能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31~35세 계층의 종업원이 전 직능을 통해서 가장 活動적인 연령임을 알 수 있다.

34~49세 계층은 137명으로 20.8%이며, 31~35세 계층 다음으로 많다. 職能別로는 사무계가 26명으로 동계층 종업원 구성비 19.1%이며, 技術系는 51명으로 동계층에서 37.2%이

(4) 노동청,「勞動市場情報」: 노동청 1968, P.17

나 전체조업중 기술계 종업원 구성에서는 가장 높다. 技能系 27.7%, 노무자 16.0%로 이 계층의 종업원은 전직능에 대해서 큰 격차없이 분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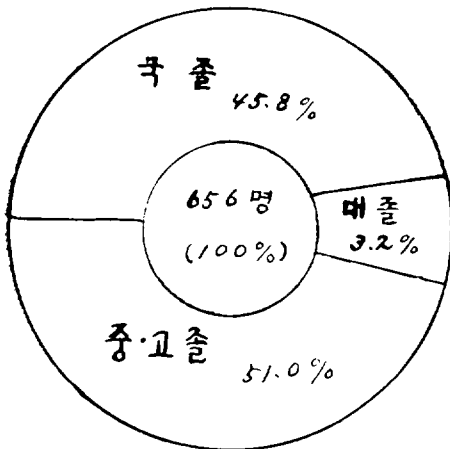
50세 이상은 전체에서의 구성비가 1.7%에 불과하여 종업원 98.3%가 50세 이하로서 전직능을 통해서 50세 이상의 종업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學力別 構成

대졸이상이 21명으로 전체의 구성비는 3.2%로 낮은 편이다. 職能別로는 사무계 종업원이 17명으로 대졸이상의 종업원 구성비가 80.9%이며 技術系 2명, 技能系 2명이고 노무자는 없다. 일반적으로 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는 사무계에 종사하는 전국의 실태와 같다.

中高卒은 335명으로 51.0%에 해당되며 이 중 사무계 종업원이 16.7%인 56명, 技術系

〈圖 1〉 學力別 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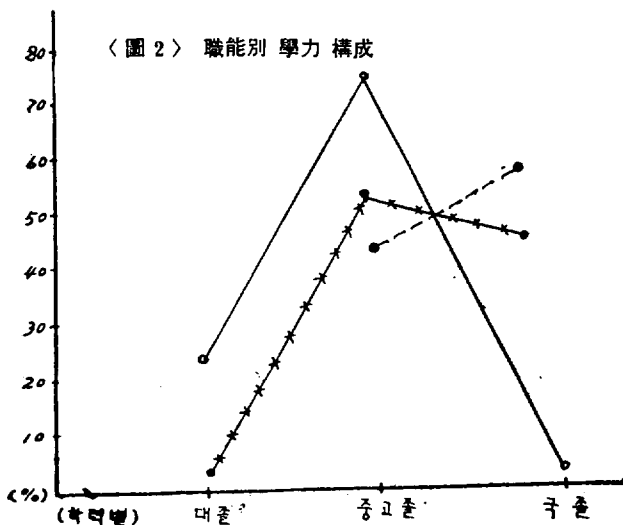
8.2%(61명), 技能工은 38.8%로 가장 많다. 따라서 이 계층의 종업원은 간단한 기술을 요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사무계의 종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國卒의 종업원은 300명 (45.7%)으로 전종업원 구성비에서 中高卒從業員 다음으로 많은 편이며 職能別로는 노무자가 자체의 構成比 41.3%로 가장 높으며 기능공 역시 약 41%로 동일한 비중이나 노무자는 全體의 구성비가 약 56%로서 이 학력층의 종업원의 거의가 노무와 간단한 숙련을 요하는 기능계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圖 1〉

全体的으로 보아 中高卒의 종업원이 사무계, 기술계, 노무직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圖 2〉



--- 노무자
 -x-x- 기술·기능
 _____ 사무원

Ⅳ 賃金實態

賃金은 勞動力을 所有하고 있는 종업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의 근소한 변동이라도 종업원의 士氣에 크게 영향을 미쳐 生産意慾을 자극시키고 종업원의 生計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企業家에게는 生産費의 構成要素가 되는 것임으로 賃金の 合理的 算定問題야 말로 勞務管理 문제중에서 가장 重要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60년을 基準으로 볼 때 全國製造業 生産종업원의 임금은 계속 증가하여 1967년 현재 月當 給與額이 6,740원으로 평균 14.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最低生計費에도 훨씬 미달되는 실정에 있다. 1968년에 노동청에서 조사한 全産業勤勞者 賃金實態에 의하면 평균임금이 11,070원으로 67년에 비해 23%가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최저생계비 22,740원(6인가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製造業 勤勞者의 임금수준은 平均水準에도 미달되는 9,030원으로 가장 낮은 실정이다.

본도 製造業의 賃金實態는 실시면접 조사에 의하여 작성한 것과 鑛工業 센서스에 의하여 산정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調査對象 業체를 비교적 건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調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며 또 한가지는 1966년 조사당시와 1969년 조사 당시와 임금액의 증가에 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1969년말 현재로 전국의 賃金實態調査 資料를 발견치 못하여 본도의 임금실태와 전국의 것을 비교 분석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規模別에서는 직접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기타는 1966년의 鑛工業「센서스」에서 산정 비교한다. 따라서 1969년말 현재의 전국 임금실태의 資料가 확보되는 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코저 한다.

1. 業種別 賃金實態

業種別로 가장 높은 임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飲料品製造業 月間 給與額 6천원으로 전국의 水準도 역시 본도와 동일 水準인 6천원이다. 전국의 製造業 平均賃金 5천8백원 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業種이 燒酒製造業으로 附加價値額 構成比도 全製造業中 51%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生産額, 出荷額에서 역시 1위의 위치를 점하여 본도에서는 比較的 건실한 運營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절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雇傭의 安定面에서 보아도 從業員 構成比가 2위 임으로 본도에서는 비중이 높은 業종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60%) 食料品製造業은 月平均 給與額이 2,200원으로 1日 70원 정도로 계산될 수 있다. 食料品製造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澱粉製造業 (약75%) 임으로 (季節産業) 業종의 성격으로 보아 연간 給與額으로

환산하였기 때문에 平均 給與額과 상당한 格差가 있는 것이다. 澱粉製造業이 10~3월까지 6개월간이 移動期間임으로 年間 總급여액을 6개월로 환산하더라도 약 4천원 정도임으로 전국 食料品製造業 5천 8백원에 비하면 1천3백원이 낮다.

飲料品製造業 다음으로 賃金水準이 높은 業種은 輸送用 機械製造業 5천7백원이며, 다음이 金屬製品 製造業 5천4백원으로 전국의 5천5백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국의 水準과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業種은 (식료품제조업 제외) 靴類 및 衣服類製造業으로서 전국 수준 6천원인데 대하여 2천7백원으로 전국 수준의 반에도 미달되고 있으며 본도 平均 水準 3천1백원에도 훨씬 미달되고 있다. 계속 생산이 가능한 業種임을 감안하면 食料品 製造業 보다 賃金水準이 낮은 것으로 단정지을 수 있으나 從業員의 대부분이 見習工으로서 이에 대한 임금수준을 他業種과 比較하기는 곤란하다.

纖維製品製造業 역시 全國水準이 6천1백원인데 대해 2천8백원으로 격차가 심하고 종업원 구성비도 낮으며 시장의 협소와 生産品의 限定으로 小規模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從業員 역시 필요할 때마다 日傭으로 雇傭하여 생산에 從事시키고 있음으로 연간 급여액에서 平均 賃金を 산정한다는 것은 實態 파악을 위해서는 큰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 업종에 종사하는 從業員 대부분이 學力이 낮고 연령이 낮은 女子 종업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 表 10 >

業種別 給與額比較

단위:천원

區 分	全 國	本 道
食 料 品	5.8	2.2
飲 料 品	6.0	6.0
纖 維	6.1	2.8
靴類, 衣服類	6.0	2.7
製材, 木製品	6.1	3.4
家具, 裝置品	5.5	3.3
印刷, 出版	6.0	5.2
石油, 石炭製品	6.7	3.9
유 리, 土 石	5.1	4.7
金 屬 製 品	5.5	5.4
機 械	5.9	4.8
輸送用機械	6.0	5.7
其 他	5.5	2.8
	5.8	3.1

資料 : 산업은행 前揭書에서 作成

제조업 全國 平均 賃金 水準이 5천8백원에 대해서 본도의 平均 賃金 水準은 3천7백원으로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 있으나 본도의 製造業中 食료품제조, 靴類 및 衣服類製造業과 纖維製造業의 賃金 水準이 현저히 낮는데 기인한 것임으로 他業種의 水準은 전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놓여 있다. (表10)

2. 規模別 實態

5~20명 規模의 平均 賃金은 4천1백원으로 職能別로는 노무자 2천8백원으로 가장 낮으며 사무계 종업원 3천9백원, 技能系 4천4백원, 技術系는 5천4백원으로 가장 높다. 이 規模에 본도 製造業의 69.5%가 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본도 종업원과 반수 이상이 이 수준의 賃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1~50명 規模의 平均 賃金 水準은 7천7백원으로 전체의 평균수준 7천5백원을 약간 上廻하고 있으며 職能別로는 사무계 종업원 9천5백원으로 가장 높고 노무자는 5천6백원으로 가장 낮으나 5~20명 規模의 최고 수준 技術系 종업원 5천4백원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51명 이상의 규모에서는 평균 임금수준이 1만5백원으로 5~20명 規模의 수준 2배 이상이며 21~50명 業體보다도 약 3천원이 높다. 최고 수준은 사무계 종업원과 기능계 종업원 1만2천원이고 기술계 종업원은 약간 낮은 1만1천2백원이나 노무자는 사무계 종업원의 약 반에 지나지 않는다.

職能別로는 사무계 종업원 평균 임금 8천6백원으로 타직능에 비하여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나 5~20명 規模의 業體에서는 51명 이상의 規模에 대하여 약 3분의1에 지나지 않으며 21~50명 규모에서는 9천5백원으로 5~20명 規模의 약 배 이상의 수준이다. (表11)

規模別 職能別 賃金

< 表 11 >

단위: 원

職 能 別→ 規 模 別↓	事 務 員	技 術 者	技 能 工	勞 務 者	平 均
5-20人	3,920	5,400	4,400	2,300	4,100
21-50人	9,550	8,300	7,500	5,600	7,700
51人以上	12,000	11,200	12,000	6,800	10,500
平 均	8,600	8,300	7,900	5,000	7,450

전국 사무계 종업원 임금수준 1만2천5백원에 대해서 본도는 8천1백원으로 그 폭이 크나 51명 이상의 規模에서는 1만2천원으로 전국의 수준과 같다. 그러나 5~20명 규모의 임금수준 3천9백원은 전국의 1만원에 비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다.

21~100명 이하의 본도 평균 임금수준은 1만2백원인 바 전국 동일 규모의 수준 1만3천5백

원에 비하면 역시 낮은 것이다. 一般的으로 規模가 클 수록 賃金水準은 높아지는 경향(全國의 경우도 같다)이 있음으로 小規模業체와의 심한 임금수준의 격차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技術系, 技能系, 勞務從業員 평균임금은 7천원이며, 이중 기술계 종업원이 8천3백원으로 가장 높고 노무자는 5천원으로 가장 낮으나 生産系從業員 全國 平均 賃金水準 6천8백원 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全國 職能別 賃金水準은 사무계종업원이 생산계종업원의 약 배의水準으로 사무계 종업원에 대한 우대현상으로 보이나 사무계 종업원의 대부분이 高卒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 表 12 > 學力別 規模別 月平均賃金 (全國) 단위:천원

規 模 別		平 均	5-9인	10-29인	30-99인	100-199인
學 力 別						
國	卒	5.3	5.1	5.2	5.5	5.4
中	卒	6.9	6.4	6.7	7.0	7.3
高	卒	9.8	7.9	9.2	10.5	10.4
大	卒	16.2	11.2	13.5	16.8	19.3
平	均	7.0	5.8	6.4	7.6	8.2

資料 : 중소기업은행 「조사월보」 1968, 69호, p. 7

全國의 學力別, 規模別 月平均賃金を <表12>에서 보면 大卒學力の 종업원 平均賃金 1만6천2백원으로 國卒의 종업원 5천3백원의 약 3배에 달하고 있으며 規模別 賃金 역시 規模가 큼에 따라 높은水準에 있다. 그러나 본도의 경우 5~20명 規模의 종업원 대부분이 中卒 이하의 學力이기 때문에 사무계종업원 일지라도 賃金水準이 낮은 것이다.

사무계와 생산계 종업원의 賃金水準은 8천6백원 대 7천원으로서 거의 같은水準에 있어 全國의 경우와 같이 그 격차가 심하지 않은 것이 特徵이다.

3. 賃金 支拂 形態

調査對象業체의 59%가 月給으로 支拂되고 있으며, 日給이 36%, 日月 併合給 5%의 順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安定性이 있는 月給의 形態이며 規模別로는 21명 이상의 業체에서는 2個業체를 제외하고 모두 月給인 반면 20명 이하의 規模에서는 79%가 月給, 21%가 日給, 나머지가 日月併合給의 形態를 취하고 있음을 볼때 規模가 작을수록 固定종업원 보다는 臨時 從業員에 의한 불규칙적인 運營을 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企業側의 사정으로 계속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규모의 賃金水準이 全

職能에 대해서 극히 낮은水準에 있기 때문에 사무계와 기술계종업원을 제외하고는 學力과 年令이 낮은 女子從業員으로서 이것을 生業으로 삼지 않고 여가를 이용하여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日給의 形態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이 規模의 사무계종업원은 생산에 종사하면서 사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賃金水準은 3천9백원으로 낮으나 技能系나 技術系從業員 보다 높은 賃金を 지급받고 있다.

能率給은 全体の 33%가 채택하고 있으며, 5~20명 규모에서는 月給形態를 취하고 있는 系體의 52%가, 日給制에서는 전혀 能率給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日給 종업원은 능률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순부문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1명 이상의 업체에서는 日給制를 취하고 있는 2개 業體를 제외하고 모두 能率給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規模가 큼에 따라 經營管理方式이 능률위주로 되고 있으며, 한편 종업원의 士氣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보겠다. 日給制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生産過程에서의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이 제도의 채택이 장려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21명 이상의 규모에서는 대개의 경우 機械에 의한 大量生産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채택이 불가결의 요소임으로 이의 합리적인 運營이 요망된다.

< 表 13 > 地域別 賃金比較

全 國	서 울	釜 山	京 畿	江 原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100	123.5	109.9	103.7	77.8	87.7	74.1	74.1	79.0	82.7	90.1	60.5

料資 : 중소기업은행 「조사월보」 1968, 29號 P. 29

이상에서 본도의 賃金實態를 規模別, 業種別로 검토하였다. 資料가 불충분하여 年令別, 勤續年數別, 性別의 賃金實態를 다루지 못하였으나 이 부문에 대해서 별도로 全國의 통계자료가 수집되는대로 취급코자 한다.

地域別 賃金水準으로 全國을 100으로 할 때의 본도는 60.5%에 불과하여 全國에서 최하위에 있다. (表13)

본도의 노동시장의 협소로 인한 노동력 공급과잉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나 그 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이 빈약한 실정이고 賃金이 企業主의 恩惠的 報酬라는 전근대적인 관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V 勞動時間面에서 본 實態

適正 勞動時間과 休息은 勤勞者의 勞動力 再生産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生産能率과 제품의 質을 높이기 위하여도 필요한 것이다.

本道 製造業의 경우 (調査對象 36個業體) 노동시간을 8시간 미만과, 8시간, 10시간 이상으로 나누어 調査한 결과 80.5%인 29개 業體가 8시간이며, 8시간 미만은 14.0%, 10시간 이상은 2개 業體인 5.5%로 나타났다. (表14)

< 表 14 > 規模別 勞動時間

規模別	8시간 미만		8시간		10시간 이상		계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5-20명	5	19 %	21	78 %	1	3 %	26	100 %
21-50	—	—	7	87.5 %	1	12.5 %	8	100 %
51명 이상	—	—	2	100 %	—	—	2	100 %
계	5	14.0 %	29	80.5 %	2	5.5 %	36	100 %

8시간 미만인 業種은 국수제조업, 纖維製造業, 砂糖菓子製造業으로서 이들 업종의 대부분이 販賣市場의 협소로 공급과잉 때문에 操業短縮에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本道에서 中規模라고 할 수 있는 30명 이상의 業體에서는 모두 8시간이다. 10시간 이상의 업종은 燒酒製造業과 濁酒製造業으로서 이 두 業種은 生産額에 대한 諸比率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익성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서 계속 增加하는 需要에 응하기 위하여 時間外 作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도 제조업의 종업원은 거이가 8시간과 8시간미만의 작업을 하고 있으며 時間外 勤務에 의한 附加給 (Fringe benefits)은 없음으로서 더 한층 그들의 생계유지는 심각한 것이다.

休息時間은 全業體가 晝食時間으로 30分~60分씩의 休息時間을 두고 있다. 20명 이하의 小規模業體에서는 거의가 30分씩의 休息時間을 두고, 30명 이상의 業體에서는 모두 60分간의 休息時間을 晝食時間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피로 회복을 위한 休息時間을 두고 있는 業體는 없다. 特히 機械製造業과 같은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업종에서는 적절한 휴식시간 삽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休日制度의 適用業體도 30명 이상의 業體이며, 國慶日등의 휴일은 없으며, 월 4회의 日曜日에 한해서 실시하고, 이외의 1개월 1회의 有給休暇制度도 30명 이상의 業體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나 30명 이하의 業體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勞動時間과 관련하여 月平均 操業日數를 보면 조사대상 業體의 50%가 25日이며, 가장 操業日數가 많은 業種은 된장 및 간장제조업의 30日이며, 가장 적은 것은 국수제조업 10日, 砂糖菓子製造業 13日이다. 機械製造業과 燒酒製造業은 28日이다.

이상의 操業日數로 보아 앞에서 본 月平均 賃金은 小規模에서는 月平均 操業日數가 20일 미만이기 때문에 日給인 경우 그들의 실지로 支給받는 賃金은 약간 높을 것이다.

IV 結 言

이상에서 本道 製造業의 現況을 業種別, 規模別과 生産額에 대한 諸比率로 分類하여 그 比重을 검토하고 종업원의 實態를 全國과 比較分析 했다.

충분한 資料를 발견치 못하고 또한 調査對象業체의 選定이 일부에 국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全國의 實態가 1966년과 1967년에 對한 統計이기 때문에 本道の 1969년말 현재로 調査한 實態와의 比較에서는 資金政策등의 수립을 위한 精確한 資料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것을 참고로 하여 보다 넓은 政策의 수립이나 현 本도의 實態에 대한 改善策을 강구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從業員의 實態가 精確하고 종업원을 위한 實態가 되기 위해서는 調査對象이 從業員이 있어야 할 것이 있으나 企業主를 面接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종업원이 현재 처하고 있는 實態가 그대로 반영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분석한 實態를 要約하면

<1> 製造業 現況

① 本道の 製造業은 5~9명 規模가 43.2%를 차지하여 거의 반에 해당되는 業체가 이 規模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全國의 平均과 비율은 58.6%에 비하면 15.4%가 적은 편이나 100인 이상의 규모는 전국 3.4%에 대하여 0.4%인 단한개 業체뿐으로 약 82.0%가 29인 이하의 規模에 편중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小規模이다.

② 業種別로 比重이 가장 높은 업종은 從業員 構成比에서는 食料品製造業이다. 生産額에 對한 諸比率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業種은 飲料品製造業이며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業種은 煉炭製造業과 食料品製造業이다.

③ 地域別 分布는 濟州市에 59%로 가장 많으며 南濟州郡에 35%, 北濟州郡에는 불과 6%에 지나지 않는다. 南郡에 많은 제조업이 分布되어 있는 이유는 澱粉製造業(南郡製造業中 약 75%)의 比重에 인한 것이다.

<2> 就業 構成

① 濟州道 統計에 의하면 1969년말 현재 종업원수는 4,286명으로 이중 濟州市에 있는 業체에 1,328명, 南郡에 2,247명, 北郡에 711명이고, 1966년 광공업 「센서스」에는 3,848명으로 1955년을 100으로 할 때 약 65%가 증가 하였다.

② 業種別로 종업원수가 가장 많이 增加한 것은 食料品製造業으로 1955년 基準年度에 對해서 214%가 增加했으며 종업원이 減少된 業種은 纖維製造業으로서 基準年度の 약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③ 事務系종업원은 약 11%, 生産系從業員 89%이며, 事務系종업원은 전국비율 12.6%보다 1.5%가 낮다.

男女構成比는 男子 71.9%, 女子 28.1%, 여자종업원은 全國 各지구와 비교하면 仁川地區의 29.6%와 비슷하나 他地區에 비해서 낮다.

年令別構成은 20세미만 14.4%, 21~35세가 63.1%로 가장 많고 50세이상은 1.7%에 불과하며, 學力別로는 大卒이 3.2%, 中高卒 51.1% 國卒이 41.3%로서 中高卒의 學力을 가진 종업원이 약 반이 넘는다.

〈3〉 賃金 實態

① 賃金水準이 가장 높은 業種은 飲料品製造業으로 月平均 賃金 6천원으로 全國의 水準과 동일하나 종업원 構成比가 가장 높은 食料品製造業은 2천2백원으로 가장 낮다.

② 規模別로는 51명 이상의 業체가 1만5백원으로 5~20명 규모의 2배 이상이며 職能別로는 全國의 事務系종업원이 生産系종업원의 2배에 비해 本道는 그 格差가 심하지 않다.

〈4〉 勞 動 時 間

① 勞動時間 8時間이 80.5%, 8시간미만 14.%, 10시간 이상은 5.5%이며, 休息時間은 晝食時間 30~60분이며, 規模別로는 30명 이상의 業체에서는 60分을, 30명 이하의 業체에서는 대개가 30分이고 피로회복을 위한 별도의 휴식시간 삽입은 없다.

② 月平均 操業日數는 50%가 25日이며 가장 操業日數가 적은 業種은 국수제조업이다.

위에 要約된 實態로 보아 本道 製造業중에서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業種은 (從業員數에서) 食料品製造業과 生産額에 對한 諸比率에서는 飲料品製造業으로서 이중 식료품제조업의 전분제조업은 본도 고구마 생산증가와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 육성 내지 지역별 신설이 (고구마 생산량에 따른) 요망되며 특히 機械製品製造業은 全國에서의 比重이 2위로 높은데 비해 본도에서는 8위에 머물러 있어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政府의 기계공업 육성책에 의하여 계속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본도에서도 시설의 혁신과 規模의 확장과 더불어 본도의 공장시설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 이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책이 요망된다.

賃金面에서는 小規模와 中規模와의 賃金水準의 격차를 줄이고 全國의 水準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기계시설의 개선등으로 원가절감과 販賣市場의 개척에 의한 소규모 業체의 平均 操業日數를 늘이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企業主側의 長期的인 施設 現代化計劃과 이를 지원하는 當局의 積極적이고 制度的인 지원책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1